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0
2020 년 12 월 20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7999997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7999997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2 월 20 일

차례

1. [이재명히틀러]	3
2. [모든수인 (囚人) 을석방하라]	4
3. [오만과오만]	5
4. [돈을쫓는의료의결과가이거다]	6

고있다. 그들은언제나그렇듯자신들이인민을대변한다고, 자신들이있어야만‘민주주의’가지켜진다고, 자신들이밀어주는후보가권좌에올라야만‘자유’가유지된다고하는헛소리들만내세운다. 그러나사실은그렇지않다. 민주, 자유, 평등은오로지인민그스스로의힘과노동자민중의투쟁으로부터나온다. 누군가의손을통해서, 대리하여확립될수있는것이결코아니다.

[http:// www.pressian.com/ pages/ articles/ 2020122016163197506](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016163197506)

4. [돈을쫓는의료의결과가이거다]

의료체계가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 사용할수있는병상이부족하여대기중에사망하는환자까지다수속출하고있는상태다. 그제껏사적재산의수호자로서민간병원에개입하기를꺼려왔던정부는이제서야겨우상급종합병원과대학병원을대상으로행정명령을내린상태다.

코로나가시작된이래이미모순은있어왔다. 전체병상대비고작 10%에불과한공공병상이 90% 의코로나환자들을수용해야했으며코로나확산의진원지가된대구에서부터다수의환자들이입원조차해보지못하고숨졌다. 그간진행됐던의료민영화의결과가이것이다. 이명박근혜정권부터계속되어왔던의료민영화는문재인정부에들어서도그이름만교묘하게바뀔채계속되어왔다. 신성장동력을운운하며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개악해의료기술의영리화를가속화하고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해개인정보를당사자동의없이넘길수있게했으며추가로유전자검사의규제까지풀어개인의권리를기업에팔아치우는데급급한데반해코로나사태에서들어난바와같이처참한한국의료공공성의상태의개선에는조금도신경쓰지않았다.

사적이익에따라움직일뿐인민영의료체계는민중의건강을책임질수없다. 의료는공영화되어공공의목적에복무할수있어야하고그러지못한결과로환자들이죽어가고있다. 지금의료민영화의중단하고사적이아닌민중의건강을위해복무할수있는공공의료체계를세워야만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이재명히틀러]

이재명경기도지사가경기대학교기숙사를생활치료센터로확보하는과정에서여러이야기가나오고있다. 경기대학생들은학내커뮤니티를통해” 강제퇴사는사실이며한치의거짓도없다” 는의견을피력하고있다.

물론이재명경기도지사의결정자체가아예이해못할것은아니다. 경기도민의안전을최우선시해야한다는판단이있었다면대규모인원을수용할수있는공간이생각보다적기때문에대학교의기숙사가대안이될수있다는점은이해할수있다. 다만그과정에서’ 협의의주체인학생의의견이빠져있다는점’, ’ 사전공지없이경기도측의일방통보 3 일만에퇴사해야했다는점’, ’ 학생들의요구와의견을가짜뉴스로몰아가며처벌협박을한점’ 등의문제점이남아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일부악의적정치세력” 을운운하며” 대학커뮤니티계정을매수, 허위사실을뿌리며가짜뉴스를퍼뜨리고, 불법매크로까지이용해포털댓글공감을조작” 하고있다고주장하며가짜뉴스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으나이중한가지도이지사의말을뒷받침할만한근거가제시되지않았다. 그리고 12 월 19 일어제, 결국자신의페이스북에경기대학생들에게미안하다는사과의글을게재했다.

도대체누가가짜뉴스를뿌리고있는가? 경기대학교학생들의생활공간을공공의안전을위해사용한다며생활의주체인학생들과한마디상의도없이나가라고한것인가가짜뉴스인가? 기숙사를생활치료센터로수용하기로결정하고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충분한기간을주거나협의의기간이있었는가? 모두아니다. 그저경기도가필요하니학생들은나가야했다. 이것이라도대체어떤모습의민주주의인가? 긴급하게필요하다면민주주의를억제할수있다는발상이히틀러와무엇이다른가? 여기까지만도히틀러와다를것이없는데이지사는한술을더떴다. 자신에게반대하는의견은모두’ 가짜뉴스’ 요, ’ 악의적정치세력’ 이라고몰아간것이화룡점정이라고하겠다.

때문에우리는이재명경기도지사를히틀러라고부르기를주저하지않겠다. 국내 2 차코로나유행기당시에도그가보였던파쇼적행보를생각한다면, 이재명경기도지사는민주주의의적이라고하지않을도리가없다. 솔직해지시라. 정말경기도민을위해하는일들인가? 사람들이당신의무대뽀에환호하기를바라며악소리도못낼이들을잡아죽치고있는것아닌가? 다수를위해소수를희생하는것이당신의그’ 정치’ 인가? 우리나라키스트연대는이재명지사의이러한논리에결코찬동할수없다. 당신의행보에서사람들이언제까지고사이다운운하며기빠하고속아줄것이라고착각하지말라. 당신의생각보다사람들은똑똑하고, 서로가조금씩희생하더라도함께사는방법을택할것이다. 당신의그정치는’ 틀렸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32053_32626.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0104900did=NA>

2. [모든수인 (囚人) 을 석방하라]

우리에게어나키즘이란, 하도록요구받은것을하는것을멈추고, 우리가 하하기로동의한일을하는것이다.

우리는국가가자의적으로특정인을전염병의인공배양소에방치하는것에동의한적이없다. 코로나-19 는비말을통해전염되고, 밀폐된공간에서더욱감염속도가위험하다. 그렇기에우리는사회적거리두기를지켜왔고, 다중의모임은자제해왔다. 하지만그방역수칙을지키지않으면사회질서를파괴하는것인양인민대중을협박하던국가는, 밀폐된좁은공간에, 수백수천명의인민들을몰아넣었다. “법”을지키지않았다는이유로, 그렇기에공중의안녕에위험이된다는이유로말이다.

우리는공중의안녕을위해특정인의신병을구속하는것에동의한적이없다. 애초에, 다수의이익을위해소수의자유를희생할수있다는발상이얼마나무시무시하고끔찍한결과를가져왔는지, 우리는잘알고있다. 우리는, 자유의지주의적사회주의자로서, 우리가언제라도, 대한민국이라는‘다수’의안녕을위해희생당하는‘소수’극단주의자의위치에놓일수있음을안다. 그렇기에우리는동부구치소의수인들에게서우리스스로의모습을본다.

우리는동부구치소에구속된수인들이어떠한과정을거쳐그곳에이르렀는지, 그것이정당한지동의한적이없다. 물론그곳에는이명박씨처럼우리가, 다른그누구보다, 더분노하고, 더강한벌을원하는자들이있을수도있다. 살인범이건, 성폭력범이건, 우리가한공동체에서살아가고싶지않은자들이있을수도있다. 하지만국가는우리에게그들이구속되는것에동의를구한적이없다. 전염병이창궐하는이시점에, 그들을구치소에두는것이옳은지동의를구한적도없다.

우리는당신들이말하는그법이라는것에동의한적이없다. 법은우리가직접손댈수없는높으신의원님네들이만드셨다. 법은우리가손댈수없는높으신사법가님네들에의해집행된다. 구치소는우리가손댈수없는고위공무원님네들에의해운영된다. 이과정에서우리의동의는, 이사회인민대중의동의는어디에있는가? 우리는우리의자주적의사결정권이, 수년에한번있는선거를통해위임되는것을거부한다. 인민대중이동의한적

없는, 위로부터내려온흙정 (欽定) 법령이우리의삶을규정하는것을거부한다.

법은단순히국가체제의폭력을정당화하기위한기제일뿐이다. 법은개인의자유위에설수없다. 법은개인의생명위에설수없다.

모든수인을석방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5021?sid=102>

3. [오만과오만]

이번문재인정부의국토교통부장관문제로정국이상당히시끄럽다. 여당에서는과거그러한말을했다는것은큰문제가아니라는듯, ‘인간성을다루는곳’이아니라면서임명을강행하려는입장이며, 자칭인민, 아니, 국민의힘은변창흠씨의사퇴를요구했다. 김용균씨도, 구의역김군도모두비정규직이었다. 우리는일터에서자본가들에의해착취를당하다죽어간모든노동자들을기억하고추모할것이며, 그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변혁의길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그모든변혁의길에는국민의힘도, 정의당도, 민주당도존재하지않는다. 그들은모두‘오만’하기때문이다.

변창흠씨는‘개가조금더조심했으면’운운을하면서구의역에서죽어간김군의사망원인을일방적으로노동자의탓으로돌리는, 전형적인부르주아의면모를보여주었다. 그는사과하고반성한다고하지만, 사과와반성은그가진심으로할의유와진심으로할의도가있었을때받아들여지는것임과동시에피해자의가족들이받아들였을때성립되는것이다. 그러나그의‘사과’와‘반성’은오로지장관이되기위한요식행위이자헛바닥뿐이다. 동시에그가되고자하는것또한부르주아들에게복역하기위한‘장관직’이다. 자신의입하나로모든것이용서되리라착각하는그는, 매우오만하다.

민주당과국민의힘은변창흠씨를장관으로임명하느냐마느냐의길에있어서계속해서설전을벌여오고있다. 그들이이일로하여수많은논쟁을하는것은정치적관점에서이해할수없는것은아니나, 그저역겨울뿐이다. 이때까지수많은노동자들을탄압하고죽여왔던국민의힘도, 기만적인행보를걸어오면서이제는완전한부르주아정당으로서우뚱서‘인간성확인하는자리가아니다’라면서본색을기세등등하게드러내는민주당도매우오만하다.

변창흠씨의임명문제에있어부르주아들과국가주의자들, 그리고정치꾼들은그들이어쨌서존재해서는안되는작자들인지온세상에보여주